제 12 장 전쟁과 사랑, 묵가의 철학

1. 전쟁을 막기 위한 끝없는 투쟁, 묵자(墨子)

1) 전쟁을 사랑으로 막으려고 하다.

◇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강자는 반드시 약자를 핍박할 것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신분이 높은 자는 비천한 자를 경시할 것이고, 약삭빠른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자를 기만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전란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까닭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반대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바꾸겠는가? 묵자가 말했다. "서로 사랑하며[兼相愛] 서로 이롭게 하는[交相利] 원칙으로 그것을 바꾼다."
(天下之人皆不相愛, 强必執弱, 富必侮貧, 貴必敖賤, 詐必欺愚.
凡天下禍篡怨恨其所以起者, 以不相愛生也. 是以仁者非之. 旣以非之,
何以易之? 子墨子言曰, "以兼相愛交相利之法易之."
『묵자(墨子)』「겸애(兼愛)·中」)

→ 묵자(墨子, BC 470?~BC390?)는 춘추전국시대의 갈등과 대립의 기원을 당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찾았다. 실제로 묵자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강자로부터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수비 전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묵자의 후학들이 과학적 지식에 능통했던 이유도 그들이 전쟁기술에 능통했기 때문이다.

2) 묵자 학파의 비극적인 종말

◇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천자를 높이 받들며 따르지만, 하늘을 높이 받들며 따르지 않는다면 재난은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 폭풍이나 심한 비가 자주 불어오고 있는 것은 백성들이 하늘을 높이어 따르지 않는 것을 하늘이 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天下之百姓皆上同於天子而不上同於天, 則災猶未去也. 今若天飄風苦雨,
溱溱而至者, 此天之所以罰百姓之不上同於天者也.
『墨子』「상동(尙同)·上」)

→ 항상 약자의 편에서 싸우며 언젠가 인간이 서로를 사랑할 날을 기다렸지만, 묵가 집단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어제의 약자가 강자가 되면, 묵가는 한 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었던 새로운 강자와 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약자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비전투에 참여할 때마다 묵가들은 조금씩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 묵가들 내부에서는 강력한 군주와 인격적인 하늘 개념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현실주의가 대두하게 된다. 이들 진묵(秦墨)은 진나라로 들어가 법률 논리를 정비함으로써 진나라를 통일제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사랑하자는 평화주의를 표방했던 묵자의 사상과는 궤를 달리 하는 것이었고, 결국 절대군주의 권력으로 흡수되는 비극으로 끝나고 만다.